

클래식·도예·문화재... 인문학이 있는 저녁

광주시 '2015 시민 숲 문화강연' 직장인 참여위해 매주 화요일 7시

인문학의 깊은 향기를 맡을 수 있는 '2015 시민 숲 문화강연'이 시작된다.

광주시가 마련한 이 프로그램에는 문학, 철학, 음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며 직장인들이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퇴근 이후에 시작된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6일부터 오는 11월19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광주시청 1층 시민의 숲에서 진행된다.

오는 13일에는 문안식 전남문화재단연구소장이 '호남, 새로운 전년을 열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전 신라, 고려초 호남지역의 선조들이 새로운 전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소개하고, 새로운 전년을 준비하는 호남의 미래를 제시한다. 바닷물이 드러났던 영산강을 중심으로 화려한 고대 해양문화를 일궈냈던 호남의 바다에서 또다시 새로운 미래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이다.

시민 숲 문화강연은 ▲10월13일 문안식 전남문화재단연구소장의 '호남, 새로운 전년을 열다' ▲10월20일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의 '웰다잉'(Well-Dying) ▲10월27일 김치준 도예작가의 '그릇이야기' 등이다.

또 ▲11월3일 김승일 조선대 명예교수의 '나도 클래식? 그래, 클래식!' ▲11월10일 임영진 전남대 교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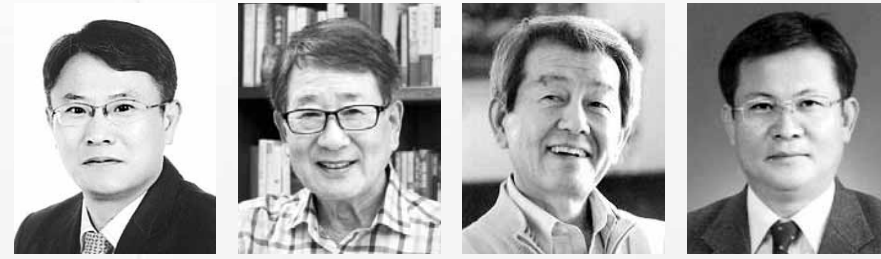
'선사고대로 떠나는 광주여행' ▲11월19일 김기태 대구아양문화센터 인문학 전문 강사의 '내 안에 있는 자유를 깨워라' 등 총 7개로 진행된다.

이 강연은 전국 최초 온라인 지식 공유 플랫폼인 열린 강연방 아리바다(arribada.gwangju.go.kr)의 오프라인 사업으로 추진된다. 모든 강연은 시간이 없어 함께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녹화, 공개된다.

광주시는 3월 국내 저명인사와 지역 대학교수 등이 지식을 기부해 시민과 공유하는 '아리바다'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민 숲 문화강연은 오는 11월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7회 운영하며, 직장인과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7시에 시청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다만 마지막 7강은 목요일에 개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문안식 소장

성진기 명예교수

김승일 명예교수

임영진 교수

한글날이 언제예요?

광주 20대 25% 몰라...60세 이상은 1명만 몰라

광주지역 20대 청년 100명 중 25명은 한글날이 며칠인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60세 이상 노년층은 단 1명만이 한글날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복지재단이 최근 광주에 사는 20대 남녀 200명과 60세 이상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한글날 맞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글이 자랑스럽게 생각되는가'라는 질문에 평균 94%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양 세대 모두 언어 중 '한국어'를 가장 '매력적인'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복지재단에 따르면 9월 제569주년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사용에 관한 신·구세대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는

별개로 청년층은 자신의 자녀세대에서는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유창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언어 중에 '자녀나 손자녀가 가장 유창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언어가 무엇인가'는 질문에 노년층은 '한국어'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59%), 청년층은 한국어(40%)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영어'(48%)를 꼽아 세대별로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신조어'에 관해서는 양 세대 간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떡방'

'맛집' '노세남' 등 신조어 20개를 제시한 설문지에서 청년층은 94% 이상이 '16개 이상' 대부분의 신조어를 알고 있는 반면 노년층은 60% 이상이 20개 중 '5개 이하'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시, 위기가정 집중발굴

광주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위기가정 집중발굴에 나섰다.

시는 동절기(2015년 10월~2016년 3월)를 맞아 저소득층 위기가정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달부터 12월까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발굴된 위기가정에는 사유별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해산·장제비, 교육비를 지원하고, 동절기에 한해 연료비로 가구당 월 9만8000원을 지원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득 기준이 미달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형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또는 사람)를 집중 찾아낼 계획이다. 위기가정을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일자리 창출 힘 모읍시다"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사진 가운데)는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선대와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도시공사는 6일 빛고을고객센터 15층 중회의실에서 도시공사 조용준 사장과 차용훈 조선대 산학협력담당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공사 제공>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광주 복구에 후원물품 전달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대표 송승민·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최근 광주 복구정에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호남영업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식료품을 담은 행복

상자 500개를 송광운 복구정장에게 건넸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하나은행의 행복상자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연 4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시, 부산서 남도관광 홍보캠페인

광주시는 가을 관광주간을 맞아 7일 부산에서 남도관광 홍보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시, 전남도, 한국관광공사, 광주시관광협회, 한국도로공사,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해 고속도로 부산톨게이트

와 섬진강휴게소 등에서 관광주간 홍보물, 관광안내책자 배부 등 남도관광을 알릴 계획이다.

관광주간은 국내여행 수요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병원건물 임대

남구 송하동 광주대입구
센트럴예식장 건물
토지 2211m2(668평)
건물 4218m2(1276평)

*병원용도에 따라 10년이상 임대보장
*파격적인 임대조건(보증금 및 차임)

문의 010-7570-7525

www.솔향기맑은터.com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